

##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문형 대조와 학습자 오류분석

신 자 영  
단독/연세대학교

**Shin, Ja-Young(2003). Estudio contrastivo de los verbos del coreano y del español y análisis de errores. *Revista Iberoamericana*, 14, 87-111.**

En este trabajo pretendemos hacer un análisis contrastivo de los verbos principales del coreano y del español desde las perspectivas léxico-semántica y sintáctica. Como es sabido, el estudio contrastivo se asienta sobre el estudio sistemático de más de dos lenguas respecto a todos los niveles de representación lingüísticos dentro de un modelo gramático determinado. Asimismo, el estudio contrastivo trata no sólo de las diferencias sino también de los aspectos comunes que existen entre las lenguas.

Para este objetivo, en el presente trabajo nos hemos basado en una muestra de 52 verbos del coreano de alta frecuencia extraídos de los textos de enseñanza del coreano para extranjeros y hemos intentado comparar esos verbos con los verbos del español desde varias perspectivas. Hemos hecho especial hincapié en los casos en que las construcciones verbales del español no se representan mediante las mismas estructuras que las del coreano y hemos intentado proponer una clasificación tipológica de esas discrepancias entre el coreano y el español.

Paralelamente, basándose en nuestros estudios contrastivos, hemos intentado dar explicaciones a algunos errores cometidos por los estudiantes coreanos que aprenden español. Generalmente, según las teorías de análisis de errores, se supone que hay dos tipos de errores cometidos por los estudiantes que aprenden la lengua extranjera; errores internos y errores

externo.

Los errores internos son aquéllos cometidos por no haber comprendido bien el sistema del lenguaje que se está aprendiendo. Los cometidos por los estudiantes coreanos con los artículos, con la conjugación de los verbos, con la concordancia de número y con el género de los sustantivos y adjetivos en el español son unos ejemplos de este tipo de errores. En cambio, los errores producidos debido a las propiedades contrastivas de la lengua coreana y del español se denominan errores externos.

Este estudio se trata de un análisis de los errores encontrados en los más de doscientos exámenes que yo misma he hecho a los estudiantes de los cursos de preparación(pre-intermedio/iniciativo), intermedio y avanzado de español. Los estudiantes de los cursos de preparación claramente cometían errores internos, pero los de los cursos superiores tendían a tener menos. En cuanto a los errores externos, se encontraban igualmente tanto en los cursos iniciativos como en los superiores. En este estudio, no hemos podido ofrecer una buena y perfecta estadística, pero queremos proponer los tipos de las propiedades contrastivas del coreano y del español y señalar los ejemplos de los errores cometidos debido a la mala interpretación de estas propiedades.

Nuestro estudio ayudará a los estudiantes coreanos a entender mejor las diferencias tanto lingüísticas como culturales que existen entre las dos lenguas. Por otra parte, los modos de investigación que hemos adoptado en este trabajo nos permitirá analizar y explicar los errores gramaticales cometidos por los hablantes coreanos que aprenden español, así como los errores cometidos por los ordenadores en la traducción automática. Finalmente, este tipo de estudios nos proporcionará una base teórica con las específicas diferencias de las dos lenguas para la creación de un diccionario contrastivo del coreano-español.

**Key Words:** análisis de errores/ estudio contrastivo/ semántica léxica/ estructura argumental, 오류분석/ 대조분석/ 어휘의미/ 논항구조/ 격틀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상위빈도 동사 구문에 대한 어휘, 통사, 의미 대조분석을 통하여 스페인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오류를 예측하고, 실제 학생들의 작문 시험지에서 나타난 오류를 기술,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50-60년대에 대조언어학의 등장 이후로, 음성, 음운, 통사, 의미, 문화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시적 언어 대조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졌다. 대조언어학은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인류언어학, 역사언어학 등의 언어학 분야 뿐 아니라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과 같은 교육학 분야와도 연계성을 가지는데, 대조언어학은 순수 이론 언어학에서 보다는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많은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대조분석론의 기본 논리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 시 주된 장애는 모국어의 간섭이며, 즉, 새로운 언어는 모국어라는 필터를 통하여 학습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모국어가 가지는 모든 언어적 특성, 즉, 발음, 어휘형태, 문장구조, 의미,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한 뒤 외국어를 배우도록 지도할 경우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교육용 교재에서 추출한 상위빈도 동사 구문을 어휘, 의미, 통사적 측면에서 대조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두 언어간의 대조 자질들을 유형별로 기술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조 가설에 기초하여 대조 분석의 결과를 스페인어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는 기본 자료로 삼게 된다. 또한 예측된 대조적 오류들의 실제 나타난 예를 2년여간 학생들의 작문 시험답안지 300여 개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어 교육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II. 연구 방법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대조적 자질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서 추출한 상위빈도 동사 52개를 중심으로 각 동사의 의미항목, 논항구조, 격틀, 논항의 의미제약 등을 기술하고, 각각의 의미항목에서 한국어 동사 구문이 스페인어로 번역될 때에 어떤 구문으로 번역되는 가를 자세히 기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조적 자질들을 유형별로 기술하였다.<sup>1)2)</sup>

대조의 실제 예를 한국어 ‘먹다’의 의미유형과 대응되는 스페인어 격틀로 보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스페인어를 학습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대조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표 2>에서처럼 스페인어 ‘comer’의 모든 의미유형에 대한 한국어 대응표현을 기술한다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나타나는 대조 유형과 관련이 있게 된다.

<표 1> 한국어 ‘먹다’의 의미기술과 스페인어 대응표현

먹 다	스페인어 대응 표현
딱딱한 음식을 씹어 입을 통하여 넘기다	
1) 1이 2를 먹다 (1: 유정, 2: 고체성 음식)	1 comer(se) 2
액체로 된 것을 마시다	
2) 1이 2를 먹다(1: 유정, 2: 액체성 음식)	1 tomar/beber 2

- 
- 1) 동사 대조 기술의 자세한 자료는 강현화, 신자영 외(2002)에 나와 있으며, 각 동사별 대조기술은 강현화, 신자영 외(2003)을 참조하시오.
  - 2)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기본 동사는 양자간에 통사적으로 언제나 규칙적인 대응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서-한 대역 시에 일관적으로 대응 의미나 문형을 기술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즉, 의미 항목별로 규칙적 대응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한 동사가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의미를 기술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역 표현의 의미, 통사, 화용적 정보에 대한 대조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번역에 있어서도 직역과 의역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회화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의역을 하게 되면 두 언어간의 의미적 교집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색하지 않은 범위에서 문법적인 번역을 택하였다. 이 부분은 스페인어 한국어 이중언어 화자의 도움을 받았다.

- 약을 씹거나 마시다  
 3) 1이 2를 먹다 (1: 유정, 2: 약) 1 tomar 2
- 입이나 코를 통하여 연기나 기체를 들며 마시다  
 4) 1이 2를 먹다 (1: 유정, 2: 기체) 1 tomar 2
- 어떤 마음이나 자세를 가지다  
 5) 1이 2를 먹다 (1: 사람, 2: '마음') 1 decidir 0 (0:동사원형)
- 어떤 일에 일정한 몫이나 이익을 차지하다 (2: 돈) 1 quedarse con 2  
 6) 1이 2를 먹다 (1: 사람, 단체, 2: '돈', '뇌물') (2: 뇌물) 1 ser sobornado  
 ※2의 의미가 동사에 포함
- 어떤 나이가 들다  
 7) 1이 2를 먹다 (1: 사람, 2: 나이) 1 cumplir 2
- 물기 같은 것을 빨아들이다  
 8) 1이 2를 먹다 (1: 물건, 2: 물) 1 absorber/ empapar 2
- 대패나 톱 등이 잘 들다  
 9) 1이 2 먹다 (1: '톱', '칼날', 2: 부사어) 1 cortar 2
- 경쟁이나 시험에서 높은 등수를 차지하다  
 10) 1이 2에서 3을 먹다 (1: 사람, 2: 경기, 3: 등수) 1 ser 3 en 2
- 원래의 상태가 손상되다  
 11) 1에 2가 먹다 (2: '벌레', '버짐') 2 comerse 1
- 강제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다  
 12) 1이 2를 먹다 (1: 사람, 2: 사람(여자)) 1 violar a 2
- 겁이나 충격 등을 경험하다 (2: 쇼크) 1 asustarse  
 13) 1이 2를 먹다 (1: 사람, 2: 겁, 쇼크) (2: 겁) 1 asustarse de miedo  
 ※2의 의미가 동사구에 포함
- 어떤 규제나 조처 등을 당하다 0 [1: 여격clitic] multar (a 1)  
 14) 1이 2를 먹다 (1: 사람, 1: 벌) ※2의 의미가 동사에 포함
- 남으로부터 욕이나 편잔을 듣다 1 ser humillado/avergonzado por 0  
 15) 1이 2를 먹다 (1: 사람, 2: 욕, 편잔) ※2의 의미가 동사구에 포함

<표 1>에서 한국어 ‘먹다’에 기술된 18개 의미항목이 16.7%에 해당하는 3개 항목에서만 스페인어 ‘comer’로 대응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대응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먹다’를 모두 스페인어 ‘comer’로 번역할 경우 83.3%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에서 각 의미 항목에서 논항의 의미적 제약은 스페인어의 동사를 선택하는 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가령 ‘먹다’의 경우 ‘음식물을 씹어서 삼켜 뱃속에 넣다’의 의미 항목은 논항 1이 ‘유정물’이고 논항 2가 ‘고체성 음식, 물체’일 경우에는, ‘1 comer 2’로 대역되지만, 논항 2가 ‘액체성 음식’ 혹은 ‘약’인 경우 각각 ‘1 beber/tomar 2’, ‘1 tomar 2’로 대역된다. 관용구의 경우 별도의 의미 항목 없이 구 전체와 논항에 대한 의미 정보 기술만이 명시되며, 스페인어의 해당 표현에 직접 대응된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통사적으로 논항을 실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한국어와는 달리 스페인어의 일반 명사는 형태적 격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동사는 주어의 인칭, 수에 따라 굴곡하므로, 주어는 동사의 일치 자질에 의하여 문장 내에서 확인된다. 직접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전치사 ‘a’에 의하여 표시되나, 그 밖의 경우에 형태적 격 표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간접목적어는 접어(clitic)와 전치사 ‘a’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다. 문장에서 그 밖의 다른 논항들의 격은 다양한 전치사에 의하여 표시된다. 또한 한국어에서 주제(topic)/초점(focus)은 주격조사 -은(-는) /-이(-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스페인어에서는 같은 기능이 주어와 동사의 상대적 어순에 의하여 표시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1이 2에게 3을 동사’ 격틀은 스페인어에서 ‘1 [2: 여격clitic] 동사 3 (a 2)’로 대응된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모든 경우에 한국어와 스페인어 격틀이 1대1 대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표 1>의 6, 13, 14, 15번 항목의 한국어에서 논항 2가 스페인어에서 논항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신 동사 의미의 일부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4번 항목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지 않는 논항이 스페인어에서 주어(0으로 표시)로 나타나고 한국어에서 주어인 첫 번째 논항은 스페인어에서 목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어 ‘먹다’는 ‘comer’와 대조된다.

아래 <표 2>는 스페인어 'comer'의 의미 항목을 기술하고, 이를 대역하여 한국어와 대조한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스페인어 'comer'의 경우 13개의 의미 항목 중 46%에 해당하는 6개 항목만이 한국어 '먹다'로 대응되는데, 이는 스페인어 'comer'를 한국어 '먹다'로 직접 대응시킬 경우 46%의 의미 항목에서만 대역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역되는 6개의 의미가 모두 기본 의미임을 감안한다면 그 사용빈도가 아주 높아서 의미 빈도(코퍼스에서의 개별 의미 항목의 빈도)로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표 2> 스페인어 'comer'의 의미기술과 한국어 대응표현

Comer	한국어 대응 표현
음식을 입을 통하여 넘기다.	
1) 1 comer(se) 2 (1: 유정, 2: 고체성 음식)	1이 (2를) 먹다
딱딱한 음식을 씹어 입을 통하여 넘기다	
2) 1 comer (2) (1: 유정, 2: 고체성 음식)	1이 (2를) 먹다
점심 식사를 하다	
3) 1 comer (2) (1: 사람, 2: '점심')	1이 점심을 먹다
이기다, 앞지르다	
4) 1 comer a 2 (1: 추상, 2: 사람)	1이 2를 먹어버리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언짢게 하다	
5) 1 comer a 2 (1: 유정, 2: 사람)	1이 2를 성가시게 하다
(색, 윤기를) 조금씩 파괴하다, 원래의 상태를 손상시키다.	
6) 1 [3:여격clitic] comer(se) 2 (a 3) (1: 물리적, 화학적 객체, 2: '색', '윤기')	1때문에 (3의) 2가 바래다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게 하다	
7) 1 [3: 여격clitic] comer(se) 2 (1, 2: 무정, 3: 2의 소유주)	1로 (3의) 2가 작아 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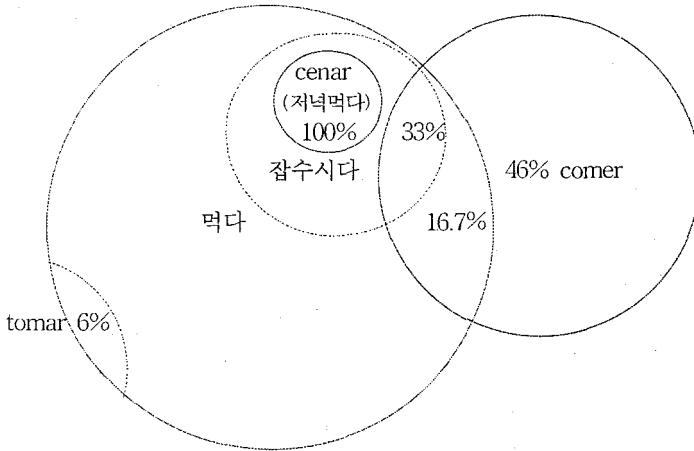
- 장기에서 말을 따먹다
- 8) 1 comer(se) a 2 1이 2를 (따)먹다  
(1: 사람 2: 장기판의 말 종류)
- 다 써버리다, 소비하다, 부식시키다
- 9) 1 comer(se) 2 / 1 [3: 여격clitic] comer 2 1이 (3의) 2를 쓰다  
(1: 사람, 기계, 2: 돈, 재산, 연료, 3: 2의 소유주)
- (글씨나 발음에서) 단어나 음을 빠뜨리다, 빼먹다
- 10) 1 comer(se) 2 1이 2를 빼먹다  
(1: 사람, 2: 언어의 단위 '단어', '문장', '음절', '음...')
- 구김을 만들다 1이 2에 구김을 만들다
- 11) 1 comer(se) 2 (1: 무정, 2: 의류, 직물류) 1로 2에 구김이 생기다
- 불안하게 만들다 2가 1로 불안하다
- 12) 1 comerse a 2 (1: 추상, 2: 사람)
- 다른 것의 가치를 잃게 하다 1이 2의 가치를 떨어뜨리다
- 13) 1 comerse 2 (1: 무정, 2: 구체, 물건의 값) 1로 2의 가치가 떨어지다

<표 1>, <표 2>에서 보인 한국어 '먹다'와 스페인어 'comer' 동사의 대조적 의미 자질을 상호 비교한다면 <표 3>과 같은 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표 3>은 한국어의 '먹다'의 16.7%가 comer의 46%와 일치함을 나타내는데, 이들의 의미 영역의 비율은 1:0.36으로 '먹다'를 100으로 할 때 comer는 36의 의미 영역을 가진다. 또한, 스페인어의 'cenar'는 '저녁을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cenar'도 '먹다'와 대조할 수 있는데, 'cenar'는 '먹다'의 격투 의미 '1이 2를 먹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먹다'를 100으로 볼 때 6 이하의 의미영역을 가진다. 한편 '먹다'의 6%는 tomar와 대조된다.



<표 3> '먹다'와 'comer'의 상호 대조분석 (먹다 : comer : cenar = 1 : 0.36 : 0.06)



### Ⅲ. 한-서 동사구 대조 결과의 유형적 분석과 오류 유형

전장에서는 한국어 '먹다'와 스페인어 'comer'의 대조의 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어 상위빈도 동사 52개의 모든 의미항목과 스페인어 대응 표현들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 동사구문 대조분석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대조적 자질은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보이는 오류 유형과 대체로 일치함을 실제 예를 통하여 보이도록 하겠다.

#### 1. 어휘의미적 대조와 오류 유형

##### (1) 어휘의미적 대조

한국어 각 동사는 기본의미가 같은 스페인어 대응 짝을 찾을 수 있다. 기본 의미라 함은 사전기술시 첫 항목이며 비유적으로 쓰이지 않은

의미를 지칭하며, 한국어의 한 동사가 가지는 의미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의미항목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스페인어 동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응되는 스페인어 동사는 한개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한개 동사에 대응되는 경우 의미영역이 중복되는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4>는 한국어 기본동사 52개의 동사별 의미항목을 기술하여 그 기본의미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동사를 선정한 후 의미 중복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한국어동사와 (대응되는) 스페인어 동사 의미 중복도

한국어 동사	중복도% (한->서)	스페인어 동사	한국어 동사	중복도% (한->서)	스페인어 동사
시작하다	100	empezar /comenzar	버리다	62.5/25.0 (12.5)	dejar/tirar
배우다	100	aprender	오다	59.3	venir
걸리다 <sup>2</sup>	100	durar+tardar	모르다	58.3/24.9/24.9 (8.3)	no saber/ no conocer/ desconocer
보이다	100	ver(se)	만들다	58.3	hacer
기다리다	100	esperar	시키다	55.6	pedir
돕다	100	ayudar	내리다	54.2/4.2(4.2)	bajar/caer(se)
쓰다	100	escribir	일어나다	53.3	levantar(se)
걸다	100	caminar/andar	앉다	50.0	sentarse
신다	100	ponerse+llevar	쉬다	50.0	descansar
만나다	100	encontrar(se)	물다	50.0	preguntar
바꾸다	83.7	cambiar	마시다	50.0	beber
나오다	83.9	salir	사다	50.0	comprar
읽다	83.3	leer	자다	50.0	dormir
살다	80.0	vivir	타다	50.0/50.0 (25.0)	subir/montar
이다	80.0	ser	하다	33.4	hacer
받다	76.0	recibir	좋아하다	33.3/33.3(0)	gustar/querer
그리다	75.0	dibujar	놓다	26.4/17.6 (2.94)	dejar/poner
넣다	75	meter	놀다	25.0	jugar

끝나다	75.0/50.0 (25)	acabar/terminar	입다	20.0	ponerse+llevar
팔다	75.0	vender	되다	33.2/11.1/11.1 (5.6)	ser/hacerse/ estar
가다	74.3	ir	있다	26.7/40.20 (6.6)	tener/estar/ haber
찾다	70.0/20.0 (10)	buscar/encontrar	먹다	16.7	comer
주다	69.6	dar	걸리다	5.3/ 5.3/ 10.5 (0)	estar colgado/ estar puesto/ tocar
듣다	66.7/49.9 (33.3)	oír/escuchar	드리다	0/75(주다)	x/(dar)
나가다	66.7	salir	잡수시다	0/33(먹다)	x/(comer)
알다	63.7/9.1 (18.2)	saber/conocer	주무시다	0/100(자다)	x/(dormir)

한국어-스페인어 동사 대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대응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어에서 한 동사의 대표 의미를 포함한 의미의 일부가 스페인어에서 같은 의미를 대표 의미로 가지는 한 동사에 중첩되는 경우 ( $K \cap S$ )로 대부분의 동사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다 & ir’의 경우 한국어의 ‘가다’는 74.2% 정도의 의미가 ‘ir’ 동사의 의미와 일치하며, ‘넣다 & meter’(75%), ‘놀다 & jugar’(25%) 등 여러 동사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로, 한국어 동사의 의미가 모두 스페인어의 한 동사로 대역될 수 있는 예( $K \subseteq S$ )인데,<sup>3)</sup> 모두 6개의 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다리다 & esperar’(100%), ‘돕다 & ayudar’(100%), ‘만나다 & encontrar(se)’(100%), ‘배우다 & aprender’(100%), ‘쓰다 & escribir’(100%) 등이 그 예이다.

셋째로는 한국어 동사가 스페인어 동사 2개 이상으로 대역되는 경우

3) 한국어 동사는 스페인어 동사로 100% 대역되지만, 해당 스페인어 동사 역시 한국어로 100% 대역되는지 여부는 스페인어 동사를 기준 언어로 하는 대조 분석을 다시 필요로 하므로  $K \subseteq S$ 라고 하였다. 이때, K는 한국어, S는 스페인어를 나타낸다.

( $K \cap S_1, S_2 \dots$ )가 있다. 이 경우에도 대응되는 스페인어 동사들 간의 의미 겹침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스페인어 동사간의 의미 겹침이 없이 둘로 명확히 나누는 경우( $S_1 \cup S_2$ )인데, ‘걸리다 & estar colgado, estar puesto, tocar’, ‘좋아하다 & gustar, querer’가 그런 예이다. 이 경우 의미 중복도는  $S_1 + S_2$ 로 산출된다.

둘째, 대응되는 스페인어 동사 간에 부분적 의미의 겹침( $S_1 \cap S_2$ )이 있는 경우도 있다. ‘끝나다 & terminar, acabar’의 경우 ‘terminar’에 대응되는 경우가 50%, acabar에 대응되는 경우가 75% 그리고 두 동사 모두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가 25%가 된다. 따라서 두 동사에 대응되는 비율은  $(S_1 + S_2 - (S_1 \cap S_2))$ 로 산출될 수 있다. 이 유형은 두개 이상의 동사에 대역되는 가장 흔한 경우로 ‘내리다 & bajar/caer’, ‘놓다 & dejar/poner’, ‘되다 & ser/hacerse/ponerse/estar’, ‘듣다 & escuchar/oír’, ‘알다 & saber/conocer’, ‘버리다 & dejar/tirar’, ‘있다 & tener/estar/haber’, ‘찾다 & encontrar(se)/buscar’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대응 스페인어 동사간 완전한 의미 일치( $S_1 = S_2$ )가 나타나는 예로는 ‘시작하다 & empezar/comenzar’와 ‘걸다 & andar/caminar’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든 의미 항목에서 두 동사 중 어느 것이 대응되어도 완전한 대역형이 된다.

넷째 유형은 한국어 동사에서 하나의 의미 항목이 스페인어에서 두개의 의미 항목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K \subseteq S_1 + S_2$ )이다. 이때 대응되는 두 스페인어 동사 사이에 의미 겹침은 없다. 한국어 ‘걸리다 & durar + tardar’, ‘신다 & ponerse+llevar’, ‘입다 & ponerse+llevar’가 이에 해당된다. 가령, 한국어의 ‘입다’는 ‘옷을 걸치거나 두르다’라는 대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동사가 상태 혹은 동작을 지시하는가 여부, 즉 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스페인어에서 각각 ‘llevar, ponerse’의 두 동사로 대응된다. 예를 들어 “그는 청바지를 입었다.”라는 문장은 현재의 상태(Lleva vaqueros.) 혹은 과거의 동작(Se ha puesto los vaqueros.)으로 대응될 수 있다. 이 유형은 한국어 동사의 의미 항목 하나가 스페인어에서 두개의 동사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두개 이상의 동사에 대역되고 의미 겹침이 없는 ‘걸리다 & estar colgado, estar puesto, tocar’ 유형과

는 구분되며, 가장 많은 오류를 만들어 내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한국어가 스페인어로 전혀 대역될 수 없는 예(K≠S)를 들 수 있는데, ‘드리다 & dar’, ‘잡수시다 & comer’, ‘주무시다 & dormir’와 같이 한국어의 존대형 동사의 경우가 해당된다. 스페인어에서는 주어 2인칭에서 ‘tú(너), vosotros(너희들)’과 같은 대명사가 ‘usted(당신), ustedes(당신들)’과 같은 존대형으로 쓰여 문법적으로는 3인칭으로 표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존대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어 존대형 동사의 완전한 대응형은 없다고 볼 수 있고, 대신 ‘주다, 먹다, 자다’의 대응형으로 대신하게 된다.

이밖에도 여러 유형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하는 한서 대조에만 중점을 두었으므로, 이는 한국어가 스페인어인 서한 대조가 면밀히 분석된 후에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대조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2) 어휘적 오류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스페인어 동사 어휘의미 대응 유형 중 한국어의 한 동사가 스페인어에서 2개 이상의 동사에 대응되는 경우에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데 (1)에서 제시한 오류들은 한국어 동사가 대응되는 스페인어 동사와 부분적으로 다른 의미영역을 가진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그대로 직역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 (1) a. \*En Corea **es** muy frío y no **lllove** en invierno.
- b. \*¿Sabe dónde **es** el Museo Nacional?
- c. \***Soy** 22 años. ¿Cuánto **eres**?
- d. \***Está** la cocina coreana aquí?  
(☐ ¿Hay un restaurante coreano por aquí?)
- e. \*Hankukkwan **hay** a la derecha.
- f. \*¿Dónde sabe **hay** un el museo la nacional?
- g. \*Ellos que **se ponen** las camisetas rojas son jugadores coreanos.

h. \*Examinó el guía de los números, pero no buscó el número.

(1)에서 제시한 예들은 대부분 한국어 동사에 대응되는 스페인어동사가 그 세부적 의미에 따라 한 개 이상인 경우로, 주어진 오류문항 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었다. 예문 (2)에 주어진 오류 문항도 한국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나타난 것이다.

- (2) a. 나는 오늘 약을 먹었다. ⇨ \*He comido medicina hoy.  
 b. 이 학생 잘 아십니까? ⇨ \*¿Sabe usted bien a este estudiante?  
 c. 컴퓨터 잘 하세요? ⇨ \*¿Hace bien el ordenador?

## 2. 통사, 의미적 대조와 오류 유형

한국어 동사가 스페인어의 대응형으로 그대로 직역되나 통사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몇몇 통사적 차이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대조 유형은 같은 유형의 오류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예를 같이 보이도록 한다.

### (1) 격틀 대조

스페인어 대역형이 한국어와 동일한 논항 수, 제약을 가지나 격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대표적 예로는 ‘좋아하다 & gustar’, ‘있다 & tener/ser’ 등이 있다. 즉 한국어 ‘1에게 2가 있다’는 스페인어 ‘1 tener 2’로, ‘1이 2를 좋아하다’는 ‘(a 1) [1: 여격clitic] gustar 2’로 각각 대응되어 한국어와 스페인어 간의 격틀 불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격틀 불일치 유형을 보이는 동사는 가장 많은 오류를 생산한다. 전치사 오류를 포함하여 많은 오류의 예를 관찰할 수 있다. (3)은 격틀대조 유형이며, (4)는 격틀대조로 인하여 나타나는 오류의 예이다.

- (3) a. 1에게 2가 있다 (1, 2: 사람) ⇨ 1 tener 2

예) 그에게 아들이 셋 있다. ⇨ Tiene 3 hijos.

b. 1이 2를 좋아한다/1이 2가 좋다 (1: 유정)

⇨ (a 1) [1: 여격clitic] gustar 2

예) 곰은 꿀을 좋아한다. ⇨ Al oso le gusta la miel.

c. 1이 2에 걸리다 (1: 사람, 2: 경찰...)

⇨ 2 coger 1/1 ser cogido/arrestado por 2

예)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걸렸다.

⇨ La policía cogió el conductor borracho.

- (4) a. \*Gusto las películas coreanas.  
 b. \*Me gusto la película coreana.  
 c. \*Me gusto las películas coreanas.  
 d. \*¿Te gustaste la comida japonesa?  
 e. \*Lo que más te gustas de tu trabajo.  
 f. \*Ellos quieren su hijo mucho.  
 g. \*Quieren sus hijos mucho.  
 h. \*Carmen le gusta la música muchísimo.  
 I. \*Carmen se gusta la música mucho.  
 j. \*Ella le gusta la música mucho.

그 밖에도 ‘아프다/doler’의 대응에서도 격틀이 일대일 대응되지 않음으로 인한 오류가 나타난다. (6)은 전치사 오류의 예로 각 예문에서 한국어 구문은 ‘-에’, ‘-을’이므로 스페인어 전치사를 생략하기 쉽다.

- (5) 1이 2가 아프다 ⇨ [1: 여격clitic] doler 2  
 a. \*Me duelo en la cabeza.  
 b. \*Me duelo la cabeza.  
 c. \*Me duele mucho a la cabeza y me duelo al estómago.
- (6) a. \*¿Puedes pasar \*(por) mi casa a recogerme?  
 b. \*Se olvidaron \*(de) los boletos.

(2) 논항구조 대조

우선 동사의 논항의 의미적 선택제약이 두 언어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한국어의 '마시다'의 경우 목적어의 의미에 따라 각각 다른 스페인어 대응형을 가진다. (8)번의 '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논항의 의미적 유형에 따른 대응형이 다르다.

(7) 1이 2를 마시다 (1: 유정, 2: 액체, 기체, 먼지)

☞ (2: 액체) 1 beber/tomar 2

(2: 기체) 1 aspirar/inspirar/tomar 2

(2: 먼지) 1 tragar 2

(8) 1이 2를 하다 (1: 사람, 2: 언어, 악기, 기계)

☞ (2: 언어) 1 hablar 2

(2: 악기) 1 tocar 2

(2: 기계) 1 manejar 2

두 언어간 동사의 선택 제약의 다름으로 인해 범하는 오류의 예는 (9)에 나타난다.

(9) a. \*En esa época, muchos hombres hacían(☞ tocaban) la guitarra.

b. \*¿Haces(☞ manejas) bien el ordenador?

그 밖의 대조 유형으로 논항의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한국어 동사의 필수논항이 스페인어 동사에서는 수의논항이 되는 경우와 한국어에서 수의논항이 스페인어에서 필수논항이 되어 두 언어간에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스페인어 대응형에서 논항이 축소되는 경우와 새로운 논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논항구조와 관련된 오류에는 재귀동사 사용에 대한 오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한 예로 한국어 '쓰다/읽다'는 목적어를 필수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



인 데 비하여 스페인어 'escribir/leer'는 목적어가 생략 가능한 수의논항이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Estoy escribiendo/leyendo."는 한국어로 번역시에 논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스페인어로 번역시에 논항이 추가혹은 삭제되어야 하는 예는 (10), (11)에 들었으며, 논항과 관련한 작문 오류의 예는 (12)에 있다.

- (10) a. 1이 2에게 가다 ⇔ 0 [2: 여격clitic] dejar 1 (a 2)  
 예) 그의 재산은 그의 아들에게 갔다  
 ⇔ Le dejó al mayor toda la herencia.
- b. 1이 오다 (1: 잠, 졸음) ⇔ 0 tener 1 (0: 사람)  
 예) 졸음이 왔다. ⇔ Tenía sueño.
- c. 1이 2에 걸리다 (1: 구체, 2: 신체) ⇔ 0 tener 1 (atragantado) en 2  
 예) 가시가 목에 걸렸다.  
 ⇔ Tiene una espina atragantada en la garganta.
- d. 1이 걸리다 ⇔ 0 tardar 1 en 0'  
 예) 서울에 오는 데 차로 열 시간이 걸렸다.  
 ⇔ He tardado 10 horas en venir a Seúl.
- (11) a. 1이 2로 가다 (1: 시선, 눈길, 신체일부, 2: 장소)  
 ⇔ [0: 여격clitic] ir(se) 1 por 2 (0: 1의 소유주)  
 예)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시선이 갔다.  
 ⇔ Me iba la vista por el vestido que llevaba ella.
- b. 1이 가다 (1: 신체 일부) ⇔ [0: 여격clitic] irse 1 (0: 1의 소유주)  
 예) 술을 많이 마시면 제일 먼저 간이 간다.  
 ⇔ Si bebe mucho el alcohol, se le va primero el hígado.
- (12) a. \*Si bebe mucho, el hígado va en peor primero.  
 b. \*Si bebes muchas bebidas alcohólicas, se va el hígado.  
 (⇔ se le va el hígado.)  
 c. \*Sus bienes fueron al primer hijo.  
 d. \*Todas sus herencias se van al mayor.

한국어의 기능동사를 스페인어로 번역시에 목적어는 동사의 의미 일부로 표현되어 결과적으로 논항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13)번은 이러한 예를 들고 있다.

- (13) a. 1이 2를 내리다 (1: 식물, 2: 뿌리) ⇨ 1 arraigarse  
 b. 1이 2를 (3에) 넣다 (1: 사람, 2: 전원) ⇨ 1 poner/encender 3  
 c. 1이 2를 (3에) 놓다 (1: 사람, 2: 무늬) ⇨ 1 decorar 3  
 d. 1이 2에게 3을 드리다 (1, 2: 사람, 3: 말씀, 설명)  
 ⇨ 1 [2: 여격clitic] explicar (a 2)  
 e. 1이 2를/에게 3을 시키다 (1, 2: 사람, 3: 이해, 실망, 안심)  
 ⇨ 1 convencer a 2 (3: 이해)  
     1 decepcionar a 2 (3: 실망)  
     1 tranquilizar a 2 (3: 안심)

재귀동사 사용의 오류도 이 부류에 넣을 수 있는데, 특히 목적어가 신체, 의복과 같은 비양도 소유물인 경우에 스페인어에서는 재귀대명사와 목적어(정관사+명사)가 동시에 나타나나 한국학생의 경우 재귀대명사를 생략하거나 목적어를 ‘소유형용사+명사’ 형태로 사용하는 오류가 많다. (14)는 그 예이다.

- (14) a. \*Me pongo mis pantalones.  
 b. \*Se quita su chaqueta.  
 c. \*Lavo mis manos.  
 d. \*Corté mi pelo.

### (3) 문법 범주 불일치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상호 번역시 서로 문법범주가 다르게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동사가 스페인어로 동사 이외의 형용사, 전치사, 구 부사구 등으로 대응되는 예를 관찰할 수 있는데, (15)는 그 예이다.

- (15) a. Tengo(동사) un hermano. ⇨ 나는 형이 있다.(형용사)  
 b. No me gusta(동사) fumar. ⇨ 나는 담배 피는게 좋지 않다.(형용사)

이밖에도 한국어에서는 명사인 논항이 스페인어로 번역시에 동사원형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16)의 예에서 논항 2를 그대로 명사로 번역한다면 어색한 스페인어 문장이 생성된다.

- (16) a. 1이 2를 시작하다 ⇨ 1 comenzar/empezar 2  
 ⇨ 1 comenzar/empezar a 2'(2': 2와 관련된 동사)  
 예) 우리는 청소를 시작했다. ⇨ Empezamos a limpiar.  
 b. 1이 2를 배우다 ⇨ 1 aprender 2  
 ⇨ 1 aprender a 2'(2': 2와 관련된 동사)  
 예) 그녀는 네 살부터 글을 배웠다.  
 ⇨ Ella aprendió el abecedario/a leer/a escribir a los cuatro años.

그 밖에도 한국어에서의 동사구가 스페인어에서는 전치사구로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난다. 이때 한국어에서 동사는 특정구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

- (17) a. 1로 해서 ⇨ por 1  
 b. 2 하면 ⇨ respecto a 1  
 c. 1로가서/가자 ⇨ en/ a 2  
 d. 결국에 가서 ⇨ al final  
 e. 세월이 가면 ⇨ con el tiempo

#### (4) 상, 시제, 태 대조

상태와 진행을 나타내는 상 표시에도 차이를 나타내며, 한국어의 현재 시제 문장이 스페인어의 과거시제로, 한국어의 과거시제 문장이 스페인어의 현재시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페인어 현재시제로 대응되는 예도 관찰된다. 또한 한국어의 수동태가 스페인어의 능동으로 혹은 그 반대로 대응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그 예로 스페인어 ‘ver’는 ‘mirar’와는 대조적으로 물리적 대상이 눈에 띄임을 의미하며 보는 주체가 주어로 대상이 목적어로 오는 능동형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한 한국어 대응형은 피동형 ‘보이다’이며, 따라서 “Veó las montañas.”는 “산이 보인다.”가 정확한 대응형이.

한국어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동작의 결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18)에서처럼 많은 동사들이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문장이나 의미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스페인어로는 현재시제의 상태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18) a. 그의 저 천재성은 가족에게서 왔다.  
 ☞ Ese genio le **viene**(현재형) de familia.  
 b. 오늘 그녀는 아주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다.<sup>4)</sup>  
 ☞ Hoy **lleva**(현재형) un vestido muy elegante.  
 c. 아이들이 의자에 앉았다.  
 ☞ Los niños **están sentados**(현재형) en las sillas.

‘옷을 입었다’의 경우 현재에 옷을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llevar’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과거에 옷을 걸친 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ponerse’의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이 두 동사의 선택에 있어서 한국어 화자는 많은 혼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ponerse’와 ‘llevar’의 선택에서 오류가 있고 그리고 시제를 그대로 과거로 옮긴 오류가 있다.

- (19) 그는 오늘 하얀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4) “옷을 입었다.”는 “그는 외출하기 위해 옷을 입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과거의 동작을 의미하나 “그는 오늘 청바지를 입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입고 있다”의 의미인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실제 한국어 구어체에서는 ‘입고 있다’ 형보다는 ‘입었다’형을 많이 사용한다.

- ☞ Hoy lleva una camisa blanca y unos vaqueros.
- (a) ?Se ha puesto una camisa blanca y unos vaqueros.
- (b) ?Se pone una camisa blanca y unos vaqueros.
- (c) ?Ha llevado una camisa blanca y unos vaqueros

그 밖에도 한국어와 스페인어 대응형 사이에 대가 일치하지 않는 예를 (20)에 들고 있다.

- (20) a. 이 볼펜은 잘 안 써진다.  
 ☞ Este bolígrafo no escribe(능동) bien.
- b. 여기서 나는 영화가 잘 보이질 않는다.  
 ☞ Aquí no puedo ver(능동) bien la película.

### 3. 화용적, 문화적 대조와 오류 유형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화자에 대한 사회적 정보에 따라 존대표현이 있으나 스페인어에서는 이러한 존대형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 말로 주어가 목적어보다 연령,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열등한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스페인어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도(Distancia Social) 여부에 의하여 인칭대명사를 ‘tú’나 ‘usted’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한국어의 존대법과 같은 대응형은 없고 ‘주다’의 대응형인 ‘dar’로 대신한다. 이와 유사하게 주어가 화자보다 연장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잡수시다’와 ‘주무시다’ 역시 스페인어 존대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각 ‘먹다’와 ‘자다’의 대응형인 ‘comer’, ‘dormir’로 대응된다.

둘째로, 동사의 은유적 표현에서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대표적 예로 ‘먹다’와 ‘comer’동사를 들 수 있다. 한국어 ‘먹다’는 은유적으로 쓰였을 때 몇 가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뇌물/돈을 먹다’는 은유적으로 ‘재물을 부정하게 가지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나이를 먹다’, ‘겁/쇼크를 먹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러한 의미는 스페인어에서 ‘comer’ 동사에 대응되지 않

고 다음과 같은 표현에 대응된다.

- (21) a. 1이 2를 먹다. (1: 사람, 2: 돈, 재산) ⇨ 1 quedarse con 2
- b. 1이 2를 먹다. (1: 유정, 2: 나이) ⇨ 1 cumplir 2
- c. 1이 2를 먹다. (1: 남자, 2: 여자) ⇨ 1 violar a 2

또한 스페인어 'comer'가 '돈, 재산'과 같은 목적어를 취할 때, 한국어와 달리 '소비하다, 쓰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스페인어 '소비하다, 쓰다'에 대한 한국어 대응 표현은 다음과 같다.

- (22) 1 comer 2 (1: 사람, 2: 돈, 재산) ⇨ '1이 2를 쓰다/써버리다'

스페인어 'comer'도 은유적으로 쓰여 주로 부정적 의미, 즉 '목적어 명사의 색, 크기, 자질 등에 손상을 입히다'를 나타낸다. 이때 한국어에서는 '먹다'가 아닌 다른 동사들로 같음된다.

- (23) 1 [2: 여격clitic] comer 3
  - ⇨ 1이 3을 아래게 하다 (3: 색)
  - 1이 2의 3을 작아 보이게 하다 (3: 신체, 장소)
  - 2 때문에 3에 구김이 가다 (3: 의류나 직물)
  - 1이 2를 부식시키다 (1: 화학물질, 3: 금속)
  - 1이 2를 성가시게 하다 (3: 사람)

그 밖에도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스페인어로 번역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색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 (24) 철수는 평균 98점으로 전 학년에서 1등을 했다.
  - ⇨ Cheolsu es el primero del curso con una media de 98.

스페인에서 학교 성적은 '수, 우, 미, 양, 가'와 유사한 등급으로만 나타내고 등수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주로 등수를 언급할 때에는 콩쿨이

나 운동 경기에서이고 학교 성적에 대한 등수 매김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또한 다음 (25)에서는 한국어 ‘도장을 찍다’가 스페인어에서 ‘firmar (서명하다)’로 대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은행이나 사업장의 서류를 증명하기 위하여 도장을 찍는 한국의 풍습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도장대신 서명을 하므로 ‘도장을 찍다(Sellar)’와 같은 직역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5)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 Firmé los documentos. (직. Sellé los documentos.)

그 외에도 ‘시집가다, 장가가다’나 ‘딸을 주다’ 같은 표현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간다는 한국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며,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없으므로 단순히 ‘casarse(결혼하다)’, ‘casar(결혼시키다)’로 나타내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언어권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스페인어 대응 표현이 문법적, 의미적으로 온전하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는 화용적 혹은 문화적 배경에 의한 오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6)은 작문에서 나타난 은유사용의 오류이다.

(26) a. 새 선생님에게 마음이 있다.

☞ ?Tengo la mente en el nuevo professor.

(☞ Estoy enamorada del nuevo profesor)

b. 그 남자는 순진한 그애를 먹었다.

☞ ?Ese hombre comió a la chica inocente.

(☞ Ese hombre violó a la chica inocente.)

#### IV.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스페인어 동사 구문 대조를 통하여 다양한 측면의

대조 유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문형대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차이점은 학습자 오류와 관련지을 수 있다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언어교육에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두 언어의 언어학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를 습득하도록 지도한다면 외국어의 효과적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이 범하는 상당수의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언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현화, 신자영, 임효상(2002),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문형 비교연구”, 『서어서문연구』, 22, 209-227.
- 강현화, 신자영, 임효상 외(2002), 『스페인어 문형대역사전』, 서울, 신아사.
- \_\_\_\_\_ (2003), 『대조분석론』, 서울, 역락.
- 김경희(2001), “스페인어 기초어휘 선정과 교수법”, 『서어서문연구』, 19, 3-18.
- 김유미(2000),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석주(2003),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 오류의 특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7, 543-57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 박이도(1996),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 서울, 한국문화사.
- 신자영, 임효상(2002), “코퍼스에 기초한 스페인어 기본 동사 선정에 대하여 — 교육용 스페인어 교재를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23, 135-151.
-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 —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송화(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분석 — 전성어미에서의 오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7, 571-60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 Gass, S.(1988),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9, 92-106.
- Gass, S. M. & Selinker, L.(19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 Shin, J. y Kang, H.(2002), “Análisis contrastivo y tipología de los verbos del



coreano y del español”, *Actas del I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Coreana de Hispanistas*, Universidad de Alcalá. (en prensa)

Shaughnessy, M. P.(1977), *Errors and expect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omers.

Whitley, M. S.(1986), *Spanish/English Contrasts*, Washington D.C., Gerogetown University Press.

신자영

연세대학교 유럽문화정보센터

전화번호: 019-285-2294

E-mail: sjyoung66@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3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2003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03년 12월 15일